

디지털 시대, 협공 받는 중년기가족

정 현 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1. 서론

디지털시대로 명명되는 21세기 정보화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사회이다. 컴퓨터의 보급은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어 기초 지식만 지니면 다른 지식은 언제든지 컴퓨터에서 꺼내 쓰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산업화시대와는 달리 중·장년들이 삶에서 터득한 기존의 방식들이 젊은 세대에 의해 별로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또한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리적 국경의 의미를 변화시키게 되면서 자본이나 자원이 온라인망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고, 그 결과 민족간 국가간 교류가 다양화됨으로 인해 세계는 세계시민, 지구촌가족으로 재편성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간관계의 법칙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일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권력이 약화되고 강력한 개인사회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인중심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및 개인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여가생활이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질적인 삶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특성을 요약하면,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와 개인주의가 특징이며 개인의 삶의 질이 중요하게 되며, 그 결과 가족이 삶에서 더 중요한 자원이 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보화 사회는 동구가 몰락하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한다. 따라서 21세기의 시작은 급속한 변화과정인 1980년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가 이제 막 중년기로 진입하는 시대이며, 소위 우리사회에서 말하는 386세대가 중년기를 맞게되는 세기이기도 하다. 학자들에 따라 39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나이로 중년기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평균수명의 연장은 중년이후의 삶을 의미 있는 시기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년의 범위도 더욱 확대시켰다. 따라서 중년기가족은 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의 가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중년기는 이전세대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386세대뿐만 아니라 산업화시대에 교육을 받은 노년기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중년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중년기를 40-65세 인구로 볼 때 <표 1>과

같이 전체 인구의 약 28.6%이며 45-65세 인구를 중년기로 볼 때는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년기는 매우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며, 각 연령에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표 1> 2001년 연령별 추계 인구

연령(세)	총인구(명)	남자인구(명)	여자인구(명)	총인구 중 비율 (%)	총인구 중 비율 (%)
40이상~44이하	4,156,659	2,117,703	2,038,956	4.4	4.3
45이상~49이하	3,162,506	1,600,435	1,562,071	3.4	3.3
50이상~54이하	2,423,362	1,213,978	1,209,384	2.5	2.5
55이상~59이하	2,006,197	988,817	1,017,380	2.1	2.1
60이상~64이하	1,868,792	886,523	982,269	1.9	2.1
전체인구(합)	13,617,516	6,807,456	6,810,060	14.3	14.3
총인구	47,676,233	24,037,741	23,638,492	50.4	49.6

* 자료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분석과

중년기는 성인초기와 같이 급격하고 많은 변화가 동반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가족의 발달주기상의 특징에 의해 가족체계는 다양한 긴장에 직면하기 때문에, 중년기 가족은 가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규칙과 패턴을 수정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가족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점차 증가하는 청소년의 독립과 개별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가족체계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며느리나 사위 혹은 손자녀와의 조화를 위하여 가족의 내외적 경계를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하는 시기이다. 또한 부모들은 자신의 중년의 변화와 점차 기력을 잃게되는 자신의 부모들의 노화에도 적응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중년기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협공받는 세대(sandwich generation)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년기 가족의 특성은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부모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부부관계가 다시 중요한 하위체계로 부상하는 시기라는 점으로 가족의 정체성과 정서적 분위기 및 가정관리와 같은 규칙들은 재조정해야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Anderson & Sabatelli, 1999). 평균가족원수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이전세대보다도 가족생활주기에서 부모역할을 수행한 이후의 시기가 증가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중년기는 새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라에서도 부모부양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결혼한 자녀들도 신거제를 택함으로써 자녀들의 결혼이후 부모들이 과거보다 부모역할의 많은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결혼생활에서의 관계의 발달 결과 가족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한 중년기 부인은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역할에서나 혹은 확대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성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들도 일에서 주도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정현숙·유계숙, 2001). 따라서 중년기가 더 이상 협공 받는 세대가 아닐 수 있으며, 새로운 주도성을 확립해나가는 시기로 인식할 수 있다. 강기정(2000)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실제 중년여성의 대다수는 현실의 경험을 통해 삶의 연륜이 가져다 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중년여성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제목에서와 같이 협공 받는 세대로서의 의미를 정보화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연결시켜 볼 때 현재 중년기를 맞게되는 세대는 정보화와 산업화사이에서 협공받는 세대임에 분명하다. 이들의 적응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시대의 성공전략을 인터넷상에서 찾아 본 결과 많은 제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아이 참사랑은 부모의 디지털화가 우선”이라는가 하면, 디지털 시대에는 20세기처럼 살면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나의 생존지수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부록 1참조)”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종합해 보면 디지털시대나 아날로그 시대나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원리는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삶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적 발전과 가족체계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성공전략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 중년기가 새로운 기회의 시기라는 인식과, 2)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또한 3) 새로운 하위문화를 형성하면서 주도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성된 현대의 중년기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달과업과 가족체계에서의 적응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가족학적 시각에 기초해 중년기 가족의 적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족학적 시각은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가족현상을 분석하며, 가족행동의 내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인과 관계 및 가족체계를 동시에 분석하는 다수준적인(multi-level) 접근방법에 기초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은 개인의 복지, 가족 내에 포함된 다양한 관계의 질 및 가족체계 전체의 건강성 수준에서 분석되고, 이 세 수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가족발달 과업이라고 본다(정현숙·유계숙, 2001). 따라서 중년기가족의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발달과 부부관계에서의 발달 및 가족체계 내에서의 적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년기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이들 관계의 특성과 적응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중년기의 부부관계

386세대가 결혼을 하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의 평균 결혼연령은 여성이 24.5~24.9세이며, 남성은 27.3~27.8세이다. 따라서 발달적 관점에서 40대 중반의 중년기의 부부는 자녀양육기가 끝나고 자녀들이 출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50대 이후의 세대는 은퇴를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남녀모두에게 불확실한 시기이며 변화의 시기이므로 긴장 또한 많은 시기이다. 이러한 중년기는 위기의 시기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학자(ACME, 1990; 짐 콘웨이, 1996; 여성을 위한 모임, 1999)에 의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시기의 중년기 부부의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삶에서의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년기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및 가족체계 내에서의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년기 부부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중년기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의 변화

중년기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변화 등 발달적 변화와 가족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 등 외적환경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시기는 다양한 역할이 강조되며, 특히 직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계속적으로 습득하고, 자녀와 청소년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육해야하는 시기이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와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여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지위에 알맞게 처신할 것이 요구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도 직면하게되는 시기이다. 중년기에 가족체계 내에서 부부관계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부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결혼 후 15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부부의 새로운 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부간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상호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부부체계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중년기 이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시기의 특징적인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를 전후하여 신체는 최고의 발달상태를 이루다가 그 이후 점진적 쇠퇴가 일어나고 중년기는 여성들은 신체적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 때문에 이 시기의 부부들은 신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며 신체적 증세와 심리적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시기의 부부들은 부부 서로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호감이 간다는 점에 대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확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들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한다.

둘째, 시간에 대한 태도를 ACME(1990)에서는 여행으로 묘사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행자들은 여행초기에는 지금까지 얼마나 왔는가를 계산한다. 그러나 중간지점쯤에 와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하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년의 시간에 대한 태도도 이와 같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를 유한한 수명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하게된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결혼관계를 재구조화하거나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시간에 대한 불안감이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중년의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 부부관계에서의 위기는 “잃어버린 영역”에 대해 서로 탓을 하게 됨으로써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들은 서로의 변화에 대한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부부 모두 자신의 삶에서 미개발 되었던 영역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인초기에는 직업이나 가족생활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바쁜 시기이다. 이시기는 자신을 되돌아 볼 여유 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했으나 중년기에는 이러한 욕구에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자녀들이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나의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내면의 소리나 자아의 욕구에 더욱 관심을 갖게된다. 이나미(2000)는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추구가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위한 독립의 의지라고 표현하였다. 중년기 여성은 자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아에 보다 충실하게 되는데, 자신이 무엇을 이룩하고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문화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배움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나타내며 자신의 존재를 찾고 싶어한다.

넷째,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게 되면 가족체계에서 부부관계에 대해 새로운 의미가 부각된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활에 몰두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유를 맛보게된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웠다는 만족감과 기쁨에서 부부는 새삼 동반자 의식을 지니게 되며 상호 보호의식을 가질 수 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나 사랑은 가라앉은 채, 다시금 한 쌍의 부부로 돌아온 중년기 부부들은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된다. 부인이 먼저 부부관계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수가 많으며, 이것이 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에는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없는 남편의 세계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며, 남편이 사회적으로 실패한 경우에는 실망감과 함께 남편에 대한 불만이 출현하기도 한다.

다섯째, 중년기 가족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자녀들의 출가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다. 자녀들이 청소년기인 경우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부양의 의무와, 정체감 갈등을 겪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자신의 중년기 위

기까지 여러가지 갈등을 한꺼번에 겪게 되기 때문에 이나미(2000)는 이를 3중의 고난으로 표현하였다. 노인부양은 의무감과 애정의 양가감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특히 별거하여 살던 부모님이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하시기 불편해 질 경우 새롭게 생활을 조절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부담을 떠맡는 쪽은 대부분 장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여성이 더 많은 갈등을 인식하게 된다.

2) 중년부부의 성장을 위한 과제

(1) 개인적 성장을 위한 과제

성인기에는 남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중년기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혹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배우자 각자의 성장은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자신의 성취에 대해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점들을 직시하여야한다. 자신의 장점을 점검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고 싶은지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관점을 심각하게 검토해보고 의미없는 행동들을 버리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들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가 정상적이고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불확신과 위기의 시기동안 배우자가 서로를 지원하게된다면 결혼생활이 개인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중년기 부부관계를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에 대한 도전정신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태도 및 긍정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미래의 목표를 세우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부부가 함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정현숙·유계숙, 2001).

(2) 부부관계의 성장을 위한 과제

중년기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이며 기회의 시기이다. 부부관계의 성장을 위해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쏟았던 애정을 부부서로에게로 향하게 하고, 서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부부들은 자신들의 관계의 기반을 다시 찾게 되고, 새로운 역할과 생의 목표를 찾을 수 있게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들은 중년기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적 성장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개인의 성장이 바탕이 될 때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 ACME(The Association for

Couples in Marriage Enrichment. 1990)에서 제안한 중년기 부부관계의 성장을 위한 4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상대방에 대한 기대의 수정: 중년기에는 결혼에서의 기대와 실제의 차이를 이전보다 더 극명히 인식하게 된다. 완벽하고 낭만적 사랑을 기대했지만, 중년에 와서는 부부가 서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지금까지 서로에 대해 실망도 느끼고 상처도 받았으며, 기쁨과 애정도 느껴왔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시기가 배우자와 현실적이고 성숙된 결혼관계를 세울 수 있는 시기이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어려운 상황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시기는 가정을 새로 꾸미거나 직장에서 자리잡기 위해 애쓰던 무거운 책임감에도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기대를 재정비하고 앞으로 공유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정서적지지 제공: 중년기의 전이는 매우 강한 정서적 변화를 동반한다. 변화가 불안할 때는 매우 상처받기 쉽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부부가 서로 공유하지 못하면 배우자는 긴장을 느끼고 심지어는 고립감과 함께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함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한다면 강렬한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게된다. 어려움과 성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부부간의 신뢰감을 키워주는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③ 성적인 즐거움을 발전시킴: 부부들이 성적인 욕구가 줄고, 성관계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성적인 능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외도를 하기도하고 정력제 등 다양한 보신음식 등에도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중년기여성은 성적인 즐거움에 대한 잠재력이 이전시기보다 더 많은 시기이다. 자녀의 출가로 인해 방해받지 않으며, 성적인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욕구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교횟수는 감소하지만 성적관계에서의 행동표현과 의사소통의 다양성은 새로운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④ 새로운 방향의 탐색: 부부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삶의 스타일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사 일을 새롭게 분담하고, 여가활동도 새롭게 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행하던 습관이나 규칙들을 깨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해 보일 수 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시기는 이전의 어떤 시기보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새로운 기쁨과 성장과 성취를 위한 영역을 탐색함으로써 중년기의 부부관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3. 중년기 부부의 부모-자녀관계

중년기가족에서는 자녀들이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마치고 초기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개별화와 분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부모들이 결혼을 빨리 하였거나 자녀출산이 빠른 경우에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독립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로 가족경계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중년부모와 청소년자녀 및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발달과업은 다음과 같다.

1) 중년부모와 청소년자녀의 관계

발달적 관점에서 사춘기로 시작하는 청소년기는 도덕발달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흔히 청소년기는 부모나 기성세대, 그리고 모든 기성제도에 대하여 저항하는 시기이며,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물질적·정신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점차 성장·발달하여 감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에서 독립을 추구하며, 자신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모-자녀간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된다. 부모와의 갈등의 원인은 연령에 따른 세대차이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때문에, 또는 청소년의 발달특징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Berger & Thompson, 1998; Dusek, 1991; Leigh & Peterson, 1986).

이 시기에는 청소년 자녀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며, 최근에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른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모-자녀관계는 주로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개성화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선제조건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심리적 이유는 청소년이 자아와 타인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주장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접근은 여성학적인 관점이 도입되면서 변화하였다. 즉, 청소년의 개성화는 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성과 세대의 변화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변화함에 따라 전환되는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Cooney, 2000). Cooper, Brotevant와 Condon(1983)는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최근의 관점이 세대간의 지속적인 연관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이시기 동안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로 헤어지지 않고 초기 결혼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관점에서는 청소년 자녀들의 개별성(individuality)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와의 연계도 증가하기 때문에, 개별성과 연관성(connectedness)간의 재균형화를 통해서 진정한 개별화된 관계가 성취된다고 주장하였다. Cooper와 동료들

(1983)에 의하면 청소년의 개성화는 개인에 의해 성취되는 절대적인 심리적 특성이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분리와 연결에 의한 특별한 관계적 맥락에서 습득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개성화는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중년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평균수명의 연장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결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모-자식간 관계의 기간을 연장시켰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조부모 역할시기를 증가시키면서 조부모가 인생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3세대, 4세대 심지어는 5세대를 형성하여 살게될 것이며, 가족관계도 점차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시기는 Galinsky의 마지막단계인 떠나보내는 단계에 해당된다. 자녀를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떠날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져야하며, 자녀를 떠나 보낸 상황에서의 부부관계의 적응 및 새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해야하는 시기이다 (김세희 외, 1992).

개별성과 상대적인 의존성에 대한 욕구가 성인초기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중년기 이후의 부모-자녀관계는 유사성과 의존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이시기는 삶의 과정에서의 공유된 규범과 가치로 인해, 가족원들이 비슷해지는 자동적인 연합, 즉, 가족연합을 형성하게 된다(Cooney, 2000). 이렇게 경험과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유대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시기는 권력이나 역할관계에서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단계에서 자율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죄책감과 초조감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노부모의 의존성 증가를 보면서 자신도 곧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되고 이로 인해 개인적 위기감은 가속화된다. 중년남성의 경우는 노부모의 노쇠에 따라 가부장으로서의 상징적 지위를 물려받으면서 이에 따르는 억압과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년기의 성인자녀와 부모관계는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학업을 마치고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됨으로써 가족 내에서 새로운 의무를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두 세대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협의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인 경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즉, 자녀들의 거주지를 부모와 함께 살 것인지 아닌지 등의 신체적 경계와 부모와 자녀의 가치차이를 포함하는 심리적인 경계,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들의 간섭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행동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Cooney(2000)는 이시기 부모와 자녀간의 경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사생활 권리 발달전략, 가족내적인 전략과 가족외적인 전략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발달

우리나라와 같이 결혼이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인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사생활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성공적인 중년기의 적응을 위해서는 개별화가 필수적이다. 개별화는 중년기가족의 가족갈등을 예방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성인자녀가 부모가 함께 거주할 경우 사생활에 대한 이해는 더욱 더 중요하다. 현대의 다양한 고부관계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분리와 의존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결과이다. 성장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간섭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지나친 자녀와의 밀착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자녀와 동료적인 밀착관계를 형성하게되는 삼각화(triangulation)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한 개인과 개인간의 발달을 위해서는 세대간의 명확한 경계가 요구되므로(Cooney, 2000), 부모와 자녀세대의 사생활권과 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경계설정을 위한 가족원간의 전략

가족원간에 경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장한 자녀와 부모가 그들과 관련된 다양한 삶의 방식과 삶에 대한 관점을 조절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가지 방법은 Hagestad(1979)가 제안한 '비부장지대(DMZ)'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DMZ는 잠재적으로 갈등이 있는 영역으로 이 영역을 상호 이해하고 이 영역 대해서는 서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성인자녀와 부모간에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Greene 과 Boxer(1986)의 경계인정(boundary recognition)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부모와 자녀세대가 서로의 행동이나 태도 및 가치 등에 대한 차이와 불일치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가 각 개인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한 자녀들의 삶이 부모의 비판이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 질 수 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얼마나 자율성이 있는가하는 정도는 성인자녀와 부모가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녀 개인의 의사결정의 빈도나 정도로 알 수 있다.

(3) 경계설정을 위한 가족외적인 책략

성인자녀의 원가족 밖에서의 역할과 지위가 성인자녀와 부모관계에서 인정되는 경계의 정도를 결정한다. 원가족 밖에서의 역할변화는 세대간의 경계를 변화시키며, 이를 통해 상호존중감과 이해심 및 다른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이끈다. 예를 들어, 딸이 결혼을 하거나 부모가 됨으로써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한다. 아버

지의 딸에 대한 이해는 딸이 일과 관련되어 비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증가한다고 한다(Nydegger와 Mitteness, 1991). 또한 부모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자식으로서 부모를 더 잘 이해하게되고 부모를 부모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써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 Nydegger(1991)는 이러한 능력이 자녀로서의 성숙(filial maturity)을 위한 조건이라고 한다. 또 한가지 자녀로서의 성숙을 위한 조건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이유(emotional distance)'로 자녀들이 자신과 그들 부모에 대해 더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게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의 성숙도 요구된다. 부모는 자녀들의 이유를 촉진해주고, 부모들 스스로도 자녀로부터 독립하여야하며, 부모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한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과 밀접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의 발달을 촉진하길 원한다면 자녀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삶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중년의 자녀는 노부모의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부양의 요구와 함께 자신의 노화과정에 적응해 나가야하는 문제가 겹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이처럼 상호 욕구와 필요가 다른 중년의 자녀세대와 노부모가 한 가족 내에 존재할 가능성은 증가하므로 가족 서로가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원만한 부모-자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족외적인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변화에 반응하여 세대간의 경계도 변화되며, 부모-자녀간의 경계도 약화된다. 자녀가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것을 잃게되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었던 권리는 위협받는다. 예를 들면, 성인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실직상태이거나, 이혼을 하고 함께 산다거나,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상황일 때 부모의 불만족도와 부정적인 감정은 증가한다. 특히 미국의 연구에서는 결혼한 딸이 이혼이후 부모-자녀관계가 악화되고, 자녀의 독립추구와 사회적 삶에 대해 자녀를 유아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갈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 밖에서의 역할과 지위는 가족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된다.

4.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중년기가 새로운 기회의 시기라는 인식과,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중년기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과 부부와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발달과업과 가족체계에서의 적응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중년기의 개인으로서의 가장 큰 발달과업은 자율성과 개별화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를 확고히 함으로

서 가족체계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도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원들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가족체계의 경계를 확고히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변화된 정보화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기정(2000). 중년여성은 애인을 원한다?(<http://www.goodmother21.com/>)
- 김세희·김정준·송미선·장화선·전선옥 편역(1992).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부모기의 6단계. 양서원.
- 여성을 위한 모임(1999). 제3의 성: 중년여성 바로보기. 서울: 현암사.
- 이나미(2000). 흔들리는 중년 두렵지 않다. 한겨레신문사.
-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짐 코웨이 저, 한성열 역(1996). 흔들리는 중년기. 학지사.
- The Association for Couples in Marriage Enrichment(1990). *Mid-life marriage*. ACME.
- Anderson, S., & Sabatelli, R.(1999).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Boston: Allyn and Bacon.
- Cooney, T.(2000). Parent child relations across adulthood. In R. Milardo & S. Duck(Eds.), *Families as relationships*(pp. 39-59). London: Wiley.
- Cooper, C. R., Grotevant, H. D & Condon, S. M. (1983).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s a context for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nd role-taking skill. In H. D. Grotevant & C. R. Cooper (Eds.),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 (pp. 43-59). San Francisco: Jossey-Bass.
- Dusek, J.(1991). *Adolescent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Jersey, Prentice Hall.
- Greene, A. L. & Boxer, A. M.(1986). Daughters and sons as young adults: Restructuring the ties that bind. In N. Datan, A. L. Greene & H. W. Reese(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Intergenerational relations*(pp. 125-149). Hillsdale, NJ: Erlbaum.
- Hagestad, G. O.(1984). The continuous bond: A dynamic, multigenerational perspective on parent-child relations between adults. In M. Perlmutter(Ed.),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in child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pp. 129-158). Hillsdale, NJ: Erlbaum.

Leigh, J., & Peterson, G.(1986). *Adolescents*. Cincinnati: South-Western Publishing Co.

Nydegger, C. N.(1991). The development of paternal and filial maturity. In K. Pillemer & K. McCartney(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pp. 93-11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Nydegger, C. N. & Mitteness, L. S.(1991). Fathers and their adult sons and daughters. In S. K. Pfeifer & M. B. Sussman(Eds.), *Families: Intergenerational and generational connections*(pp. 249-266). New York: The Haworth Press.

<부록 1> 디지털시대의 생존 지수는? (자료:http://www.nhic.pe.kr/생존지수.htm)

1. 가정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경우 언제든지 취직을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또 그럴 계획이 서 있다
2. 가족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재테크를 하고 있다
3. 주부 이름으로 만든 인터넷 E메일이나 PC통신 ID를 1개 이상 갖고 있다
4. 한 달에 한번 이상 시댁과 친정을 방문한다.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전화 연락이나 편지를 잊고 않는다
5. 부부간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며 이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지속적으로 즐기는 스포츠가 있거나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정기적으로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남))
6. 남편이 다니는 직장의 최고경영자와 동료들의 이름을 적어도 5명 이상 알고 있다
7. 자녀의 담임선생님 성함과 친한 친구들의 이름 및 비상연락처를 알고 있다(정기휴가를 제외하고 가족과 함께 혹은 부부동반으로 국내외 여행을 연2회 이상 다닌다(남))
8. 본인의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고 있다
9. 본인의 적성 개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온라인모임 혹은 외부 모임이 있다 (한국 음식 없이 다른 나라의 음식을 일주일 이상 먹어도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다(남).)
10. 한 달에 적어도 한번 이상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외식이나 문화예술행사 등을 마련하고 있다(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대책이 있고 이를 위한 자금을 모르거나 계획을 갖고 있다(남))

* 평가 방법: O=1점, X=0점

9~10점: 밀레니엄 세대. 새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음.

7~ 8점: 우수한 편. 뒤지지 않으며 노력함 한다면 언제라도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

5~ 6점: 보통 평범한 삶을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음. 만일 선두그룹에 끼기 원한다면 결단이 필요함.

0~ 4점: 구 시대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혔음. 사고방식을 전면 재조정 않으면 21세기 낙오자는 바로 당신.